

近東地域의 服飾 研究 (I)

- 聖書에서의 服飾의 象徵性과 古代 近東地域의 服飾 研究 -

충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오 춘자

目 次	
I. 序論	IV. 베두인(Bedouin)族의 服飾
II. 역사적 배경	V. 結論
III. 古代 히브리(Hebreu)民族의 服飾	참고문헌

I. 序論

히브리(Hebrew)민족의 先祖는 半遊牧生活을 하던 Sem족의 일부이다.(창세기, 10:21-31, 11:10-26)¹⁾

히브리민족이 정착했던 팔레스티나(Palestine)는 近東지역에서 문화의 요람이라 할 수 있으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Babylon) 제국과 중앙아시아에서 이집트로 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

오랫동안 히브리민족들은 가나안(Cannan)²⁾ 땅에 정착한 후 여러 차례 정복당하면서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아 왔다. 정치적으로 한 번도 우위에 설 수 없었던 것은 주위의 제국들이 이 땅을 통로로 사용하는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긴 역사를 통해서 정부자인 페르샤,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았지만, 팔레스티나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팔레스티나는 성서이야기의 중심지이며 중심인물이 살던 곳이다. 성서는 지금까지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계속 번역되고 있으며, 세계 구석구석 까지 보급되고

있다. 성서 안에는 팔레스티나지역 사람들의 생활, 문학, 예술 등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학적인 가치보다는 종교적인 메시지로써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³⁾

성서는 역사책이 아니라 종교책이다. 성서는 히브리민족의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행동(역사)을 풀어나가는 것을 나타내려고 쓴 책이다. 그 종교적인 메시지는 히브리민족들이 겪는 하느님에 관한 경험과 능력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성서가 퍼져 나갈수록 그 민족역사의 역할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민족의 역사와 지리적 조건하에서 이해할 수 있고, 지리적인 조건은 역사에 영향을 주고, 역사와 성서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어준다. 성서에는 복식의 종류, 용도, 교훈, 비유, 상징 등에 관한 언급이 많으나 사용된 용어나 형태에 관해서 정확한 설명이 어렵다.

히브리 민족의 실제적인 복식에 관하여는 성서를 근거로 복식을 연구하게 되는데, 유대교의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의 像을 그리거나 浮彫를 금지하였으므로⁴⁾ 문헌이나 복식자료가 없으므로, 주변국가의 浮彫를 통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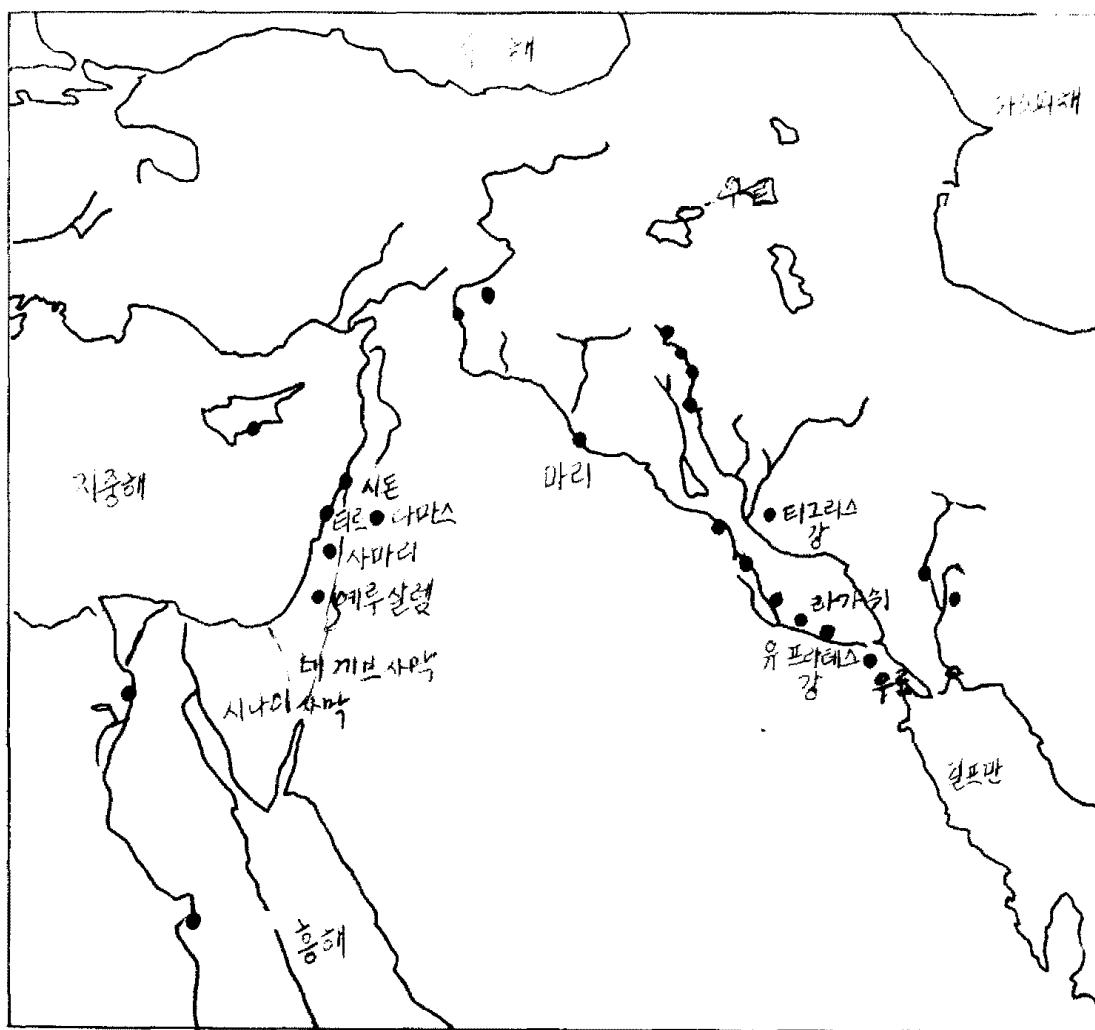
1) 공동번역, 성서(카톨릭용), 대한성서공회발행, 1977.

Traduction oecumenique de la Bible, Le Cerf, 1988.

2) 성서의 가나안은 약속의 땅, 낙원이란 상징으로도 쓴다. 팔레스티나라고도 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다.

3) H. H. Rowley : ATLAS DE LA BIBLE, Centurion, 1969, p.5.

4) Leon-Dufour Xavier : VOCABULAIRE DE TEOLOGIE BIBLIQUE, Cerf, 1970, p.218.



〈그림 1〉 근동지역 지도

本論文의 취지는 近東地域 중에 성서와 관계가 깊은 팔레스티나 지역의 복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古代히브리 민족 복식이 어떻게 발전하여 현재의 팔레스티나 지역 복식으로 전래되었는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지인 팔레스티나(현재 이스라엘)에 가서 자료를 찾아 보았으나,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팔레스티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스라엘 인들과 팔레스티나인들 간의 오랜 갈등으로 팔레스티나의 역사적 사실과 유물, 자료들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막지대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베두인(Bedouin)들의 생활 방식이, 고대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였던 것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팔레스티나 복식 또한 베두인들의 영향을 받았

으므로 현재 팔레스티나 복식을 고찰하기 앞서 베두인의 복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歷史的인 背景

1. 구약시대

히브리민족의 역사는 특정한 지역인 팔레스티나의 지리적인 조건 하에서 풀어나가야 하고, 이 지리적인 조건이란 성서를 이해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구약성서는 지리적인 맥락 안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B.C 2000년 경부터 인류역사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것들은 창세기에서 창조사업, 노아의 홍수, 바벨탑과 같은 이야기들이 히브리 민족역사를 내포하고 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史蹟이 없어 확실한 것은

없으나 아브라함 이후의 성황들을 알 수 있는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있다.

고고학이 발달한 유물들이 때로는 성서의 역사성을 강화하게 증명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고고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 안의 이야기들을 수많은 방법으로 믿을 수 있게 말끔히 해주고, 귀한 재료를 제공해 준다. 한 예로써 Louvre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Patesi의 Goudea 석상(사진 1)은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석상으로, 그 당시의 복식을 반영해주고 있다.



〈사진 1〉 Sumer의 Ur에서 발굴된 Patesi의 Goudea석상,
B.C.2250-2040, Oriental Museum Istanbul.

聖祖時代(B.C. 1800-1200)의 지도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27절이 하에서 아브라함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칼데아(Chaldea)의 우르(Ur)를 떠나 하란(Harran, Syria)으로 간너가서 칭동기 중엽에 가나안(Cannan Palestine)으로 들어간다. 그후 야곱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 자리잡고(창 46:5~7), 번성하여 살다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세(Moise)를 따라 이집트를 나와서 40년간 사막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인 팔레스티나에 정착한다.⁵⁾

5) 정양보, 이영현 : 이스라엘 성지, 생활성서사, 1988, p.183.

T. C. Mitchell : BIBLE in the British Museum, 1988, p.17.

H. H. Rowley : 1969, p.21.

6) Yedida, K. Stillman : PALESTINIAN COSTUME and JEWELRY, Albuquerque, 1979, p.1.

B.C. 721~538 바빌로니아 유배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에 서배당하면서 하브리 민족들은 그들 과 교류 생활에서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이웃인 필리스틴(Philistine), 아모리(Ammonians), 페네키아(Phénicien), 시리아(Synia), 아시리아(Assyries), 페르시아(Perses) 민족들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본다.

2. 신약시대

팔레스티나란 많은 역사적인 변화로 인해 지리적인 많은 변동이 있었던 지역이며 원래 B.C. 2000년 후기에 성서에서 셈족이 아닌 필리스틴인들에 의해 정착되었던 가나안 지역이며 현재의 이스라엘 지역이다.

B.C. 1220~1200년 하브리 민족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였고, B.C. 64~63년에는 로마가 정복하였다. A.D. 132~135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진압한 후 아마도 유대인들의 국가주의의 기억을 균절시키기 위해 서 의식적으로 셈족이 아닌 필리스틴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티나라 하였을 것이다.⁶⁾

4세기에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후 팔레스티나는 크리스챤들에게 성지(聖地)가 되었다.

3. 이슬람(Islam) 이후 시대

A.D. 632~640년 사이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의 새로운 종교를 가진 아랍 사람들이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팔레스티나를 정복하여 이슬람(islam) 교국으로 통합하게 되면서 서서히 아랍化, 이슬람化하기 시작해서 2세기 동안 계속된다.

그 지역 주민들은 Aramaic語를 쓰는 크리스챤들과 유대인들로서, 이슬람교법에 따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은 인두세(人頭稅)와 어느정도의 범률상의 재산을 받으면서 종교는 유지할 수 있게 했으나, 크리스챤이나 유대인들은 광물(貢物)을 바쳐야 하고, 하층 계급으로 남아있어야 하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서 개종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팔레스티나의 이슬람화가 가속

되었다.

1099년에는 십자군의 원정으로 예루살렘(Jerusalem)에 라틴(Latin) 왕국을 세워 한 세기를 지배하다가 1187년 살라딘(Saladin)의 귀족 쿠르디스(Kurdish)가 크리스챤을 격파하고 이슬람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얻었다.⁷⁾

팔레스티나는 십자군과 이슬람 사이의 전쟁터가 되었다가 1291년 말에는 다시 이집트의 맘모루크(Mamelouks)에 넘어간다. 팔레스티나는 이집트와 시리아를 잇는 지역으로 맘모루크의 전략상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이슬람교군주이며 터키의 황제 오토만(Ottoman)이 맘모루크로부터 팔레스티나, 시리아, 이집트를 모두 손에 넣는다.

오토만은 로마·비잔틴(Roman-Byzantine) 시대 아래로 팔레스티나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세계 제1차대전 때 영국에게 터키가 항복하면서 팔레스티나는 다시 영국의 신탁통치 하에 있게 된다.(1917~1948)

19세기 동안 유럽에서 경제적으로나 외교관과 선교사들에 의해 균동지역에 관심과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특히 영국과 불란서의 영향을 받는다. 유럽인들은 균동지역의 싼 노동력으로 영국은 직물, 불란서는 종이, 오지리는 유리를 이곳에서 제조해 갔다.

19세기 말에는 기업가들에 의해서 규모가 큰 현대적인 공장도 들어섰다.

영국의 신탁통치 하에서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국가주의가 상승하여 마침내 1947년 유엔에서 팔레스티나를 유대국과 아랍국으로 나누는 것을 제안했으나, 아랍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⁸⁾

1948~1949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아랍국들의 반발로 이스라엘·아랍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 전쟁의 결과로 유대국이 얼마의 영토를 얻은 것으로 끝났다. 그래서 동부 팔레스티나와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트란스요르단(Transjordan)에 속했다가 1950년에 요르단(Jordan)에 공식적으로 통합

되었다.

가장 큰 비극은 1948년 전쟁으로 80만 명의 팔레스티나의 난민을 남기게 되고, 이 난민문제가 아랍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갈등으로 1964년 팔레스티나 해방기구인 P.L.O.가 조직되었다.

1967년 이스라엘의 6일 전쟁으로 트란스요르단과 가자(Gaza) 지역 모두가 이스라엘 통치 하에 들어갔다.

4. 팔레스티나 地域 사람들의 生活 形態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시골사람과 도시사람, 그리고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베두인으로 구별된다. 현재, 팔레스티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고, 그 중에 크리스챤들도 섞여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종교이지만 전통적인 생활방식은 유사성이 많으며, 특히 이러한 전통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베두인들이다.

현재, 몇몇의 특정한 도시에는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데, 이들은 문화가 다른 세계 여러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민와서 정착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서는 전통생활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전통적으로 팔레스티나의 시골은 물의 균원지가 있고, 땅이 비옥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집의 형태는 좌식이고, 흙벽돌이나 돌로 건축이 되고, 벽이 두텁고 창문은 적어 더위를 막아준다. 대부분은 다세대 건축형태로 내부에는 안뜰이 있고 그 뜰을 중심으로 각 가족이 살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지중해 연안지역의 공통된 건축형태이다.

가족은 대가족 제도로 父係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五代에 걸친 가족 집단으로 넓혀진다.

시골은 농업이 중심이고, 남자들은 주로 농사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안일과 자녀양육 및 직조, 자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한다.

보통, 결혼은 가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되도록이면 사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¹⁰⁾ 일부다처제로 동시에 부인을 네 사람까지 얻을 수 있는 이슬람교의 법이 있다.

7) Yedida, K. S. : 1979, p.3.

8) Jean-Pierre alen : Le PROCHE-ORIENT Arabe, Que sais-je?, 1982, p.14.

9) S. Amiry and V. Tamari : THE PALESTINIAN VILLAGE HOME, BRitish Museum, 1989, p.18.

Widad K. Kawar : MEMOIRE DE SOIE, 1988, pp.64-70.

10) Karen Seger : PORTRAIT of a PALESTINIAN VILLAGE, Third World Center, 1981, p.75.

또한 부인의 중요한 의무는 아이를 낳아야 하고, 특별히 임안의 번영과 영광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들 낳는 것을 환영한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은 이혼을 당하는데, 이슬람교의 법은 이혼이 아주 쉽다. 크리스챤들은 종교적으로 다처도 이혼도 없다.

팔레스타나의 도시는 상공업으로 형성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그 지역의 행정 중심이다.

자파(Jaffa)와 하이파(Haifa-후에 Acre)와 같은 해안 도시는 중요 항구이며, 대부분의 도시의 활기찬 시장(suq)은 특징적이다. 즉 농부들은 직접 소출물을 팔고, 생활 필수품을 사는데 이것은 시골과 관계가 많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공중 목욕탕으로 며칠은 남자들을 위해서 열고, 며칠은 여자들을 위해서 여는데, 가장 좋은 사교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습이 고대로마 시대부터 지중해 연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하루 5번씩 기도시간을 알리면 남자들은 사원(Mosque)에 모여 기도를 하는데 도시는 시골보다 더욱 엄격하다.

베두인族의 생활형태는 IV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III. 古代 히브리 民族의 服飾

구약시대 히브리 민족의 복식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실물 자료는 없으나, 성서에 복식에 대한 구설과 묘사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서술만으로는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이집트나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야훼의 가르침에 따르라고 하였고, 스바니아 1장 8절에서 “그날에 남의 나라 옷을 입고 시들며 거리는 고관들과 왕족들을 나는 벌하리라”고 한것으로 보아 초기에는 다른나라의 복식이나 풍습을 따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성서의 히브리 복식에 관한 묘사들은 고고학이 뒷받침 해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이웃들의 복식과 차이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¹¹⁾

히브리에서 알려진 기본복식은 Simlah와 Ezor,

Kethoneth이다.

1. 기본복식

* Simlah(혹은 salmah-아랍어로 shamla)¹²⁾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놀려 입는 것(Drepery)으로 근동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입는 걸옷이다. 이것은 그리스의 Himation, 로마의 pallium과 같다. 이것은 담요의 역할(출 22:27)도 하고, 빵반죽과 반죽그릇을 나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출 12:24)

* Ezor-아랍어로는 izar¹³⁾

가장 간단한 허리에 두르는 옷으로 성서에는 잠방이로 번역되었다. “예레미아가 잠방이를 걸쳤다(예레 13:2). 이사야가 그의 잠방이(Ezor)를 벗으니 벌거벗은 것이 되고(이사 20:2), 왕이 허리띠를 푸니 비천한자가 되기도 한다(욥 12:18).

* Kethoneth

그리스의 chiton, 로마의 tunica와 같은 것이다. 셔츠와 같은 것으로 길거나 짧은 소매가 있고, 길이는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의복이다. 이것은 대개 아마(linen)나 모(wool)로 만들고, 때로는 가죽으로도 만든다(창 3:21).

B.C. 2250년 경의 슈메르(Sumerian)의 대사제像에서 simlah와 Kethoneth를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칼데아의 우르에서 온 것으로, Simlah는 술이 달려 있고, 몸에 둘러 입었다.〈사진2〉

슈메르의 王 구데아(Goudea-B.C. 2140~2130)의 상에서는 좀더 단순한 모 Simlah를 볼 수 있는데, 숨장식을 하고 왼쪽어깨를 들러서 오른쪽 팔아래로 와서 끼워 넣어 고정시켜 놓은 모습이다.

신명기 26장 5절에 따르면 “제 선조는 떠돌며 사는 아라메안이었고 적은 수를 데리고 이집트에 체제하면서 수가 늘어 한 강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만일 성서에서 묘사한 대로라면 아라메아(현 시리아)와 헬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진3〉과 〈사진4〉는 시리아인들의 복식인데 히브리인들도 이와 비슷한 복식을 입었을 것이다.

〈사진3〉에서는 Kethoneth와 Ezor를 볼 수 있고, 〈사진4〉는 시리아에서 보낸 셈족의 사절들로써, Kethoneth 위에 simlah를 둘러입은 것을 볼 수

11) Alfred Rubens : History of JEWISH COSTUME, Peter Owen Limited, 1973. p.1.

12) Leiden, E.J. Brill : Encyclopedie de l'Islam(Tome V), G.P. Maisonneuve et Larose S.A, 1986, p.783.

13) Leiden, E.J. Brill : 1986, p.738.



〈사진 2〉 Sumer의 Goudea석상,
B.C.2130, Louvre Museum.



〈사진 3〉 시리아인의 복식 Egypt 피라밋의 벽화,
B.C.1450, British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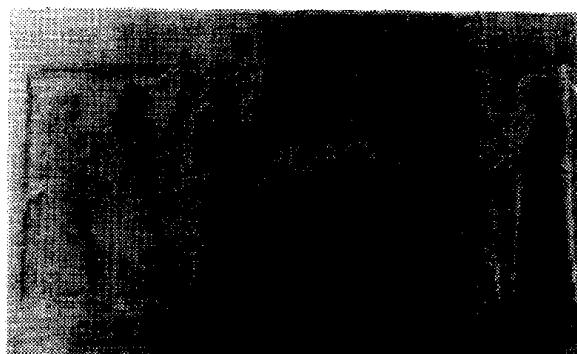
〈사진 4〉 시리아인의 복식 Egypt Thebes의 벽화,
B.C.1450, British Museum.

있다. 그들은 뾰족한 수염에 머리띠를 둘렀고, 여기서 입은 긴 소매의 Kethoneth는 희귀한 유물이다.

히브리인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념물은, 대영 박물관에 있는 살마네사 3세(Shalmaneser III - B.C. 842)의 'Black Obelisk'이다.〈사진 5〉 그 Obelisk는 4면의 다섯층으로 구분된 것 중에 두번째 줄에 이스라엘 왕인 예후(Jehu)가 앗씨리아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장면이다〈사진 6〉. 예후 뒤로는 네 명의 앗씨리아 궁중 시종이 따르고, 그 뒤로 13명의 공물을 진 이스라엘인이 따른다. 그들은 kethoneth 위에 술달린 simlah가 오른쪽 어깨를 덮고 넘어간 끝이 왼쪽 어깨위를 덮고 있다. 또한 뾰족한 모자와 코가 올라간 신발을 신고 뾰족히 다듬은 수염은 앗씨리아인들과 다른 모습이다.



〈사진 5〉 Shalmaneser III의 Black Obelisk,
B.C.859-824, British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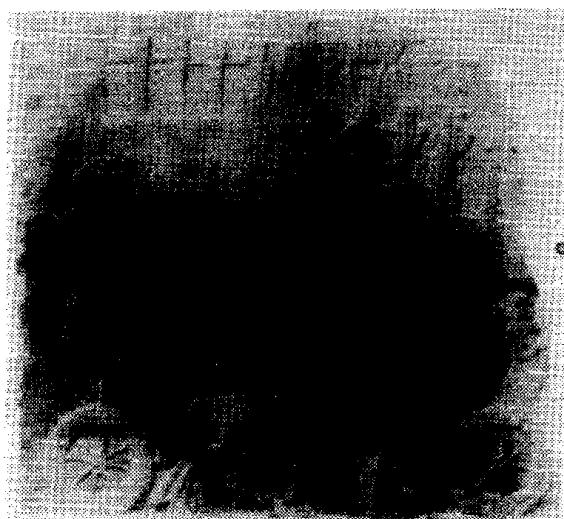


〈사진 6〉 히브리인 Jehu가 앗씨리아 왕에게
공물을 바침,
B.C. 859-824, British Museum.

예후(Jehu) 역시 뾰족한 모자와 simlah 없이
별복까지 오는 술달린 kethoneth를 입었고 가벼운
버리며 자리를 볼 수 있다.

앗씨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Simlah를 둘렀고, 혀리에 술달린 굳이 늘어져 있으며, 왕은 특별한 머리 장식을 했다. 이 부조에서 조각가가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차이 점을 두지 않아 정확하게 이스라엘인의 복식이라 주장하기 어렵지만 그와 똑같은 옷을 입은 것은 앗씨리아 왕인 티글라 필레사 3세(Tiglath-Pileser III-B.C. 745~727)에 의해 잡혀간 이스라엘인들이 있다.¹⁴⁾〈사진 7〉

또 다른 부조는 B.C. 701에 세나세립(Sennacherib) 왕에 의해 라기쉬(Lachish)로 불잡혀간 유배자들이 입은 옷은 조금 다르다.〈사진 8〉



〈사진 7〉 히브리인들의 포로와 Tiglath Pileser III, B.C. 744-727. 1 British Museum.



〈사진 8〉 히브리인들이 Sennacherib에 의해 Lachish로 유배, B.C. 701, British Museum.

이들은 짧은 소매의 긴 Kethoneth를 입었고 베머리에 수염을 깊게 깎았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과 같이 수염을 뺏죽하게 할 때나, 성서에서는 유배시기 이전에는 머리 장식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영박물관에 있는 다른 앗씨리아 부조에서는 여자들이 머리를 가린 것이다.〈그림 2〉

성서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옷의 모양이나 색을 털리 입게 했고(신명기 22:5), 화장도 하고(에제키 23:40), 팔찌, 귀걸이, 반지 등과 같은 장신구로 장식했다(이사야 3:18-23).

신발에 관해서는 구약성서에서 자주 지적했었고 Septuagint¹⁵⁾에서는 hypodemata로 하지만 때로는 sandalia라기도 한다. 후에는 발을 전부 덮은 것으로 로마에서는 calceus로 사용했다.¹⁶⁾

복식에 사용된 재료는 아마, 모, 가죽등이 있다.

2.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히브리 민족복식의 특징들

1) 술 장식(tassels-tsitsith)

구약성서에서 길옷(simlah)에 술장식을 하도록 한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대대손손 옷자락에 술을 달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빛 끈(techeleth)을 단게 하여라”(민수기 15:38)

“네가 길치는 옷자락 네 귀퉁이에는 술을 만들어 끊어야 한다”(신명기 22:12)

여기서 옷자락이란 옷은 simlah을 말한다. 앗씨리아인 가운데 허리에 늘어 뜨린 술장식 굳의 형태에 따라 왕인지 관료들이지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상징이 되고, 경우에 따라 종교적인 의미도 있다.

¹⁵⁾ 앗시리아왕 사라곤 2세(Sargon II-B.C.721-705)때 건설한 Khorsabad 궁정의 부조에 나타난 아나톨리아인(Anatolians)이나 포리지아인(phrygians)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술장식을 뷔니(tunic)끝에 붙였다.〈사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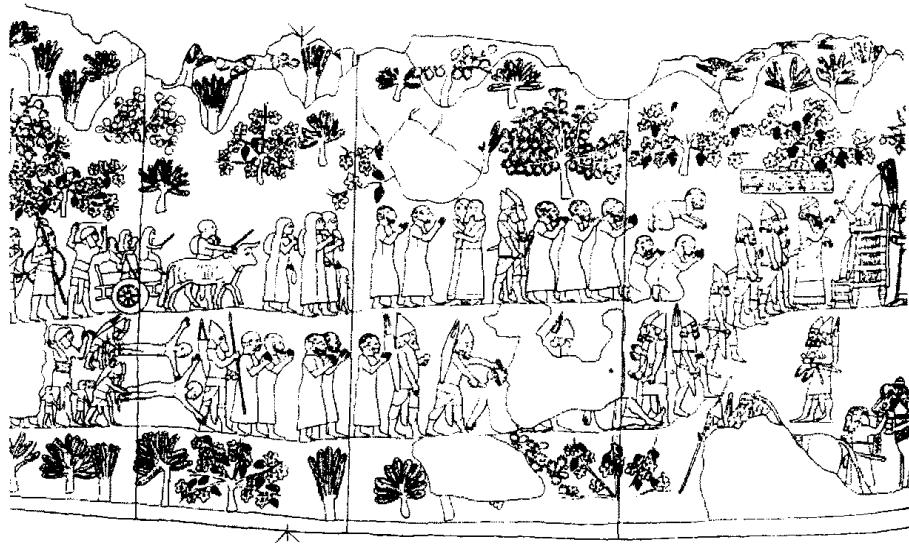
탈무드(Talmud)에 따르면 tsithith는 유대인이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나, 초기 크리스찬시대에는

14) T. C. Mitchell : 1988,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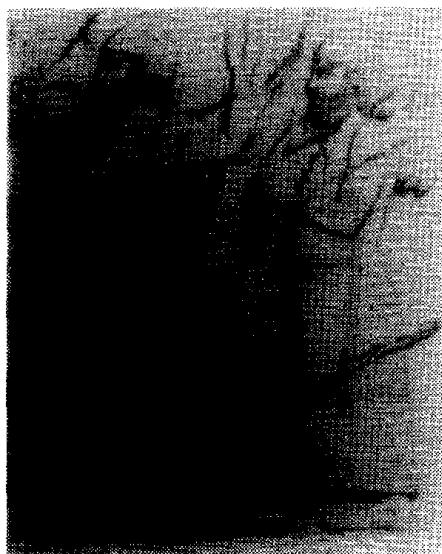
15) 70인이 번역한 그리스 구약성서, 가장 오래된 성서, B. C. 270년경에 완성됨

16) Alfred Ruben : 1973,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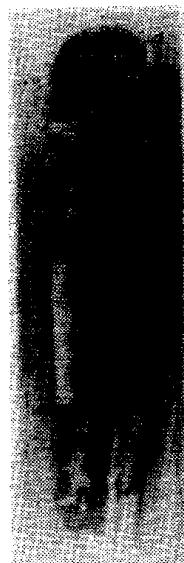
17) Alfred Rubens : 1973, p.5



〈그림 2〉 앗씨리아인들이 Sennacherib에 의해
Lachish로 유배 B.C. 700, British Museum.



〈사진 9〉 앗씨리아왕 Saragon II의 포로들,
B.C.722-705, Khorsabad palace relief.



〈사진 10〉 Libyan 포로, Egypt 벽화,
B.C.1180, Cairo Museum.

크리스찬이나 유대인은 구별되지 않았다. 그것은 크리스찬과 유대인 학자들의 논의에서 예수가 tsitsith 를 입었다(요한 19:23)는 것을 라벤나(Ravenna)의 모자익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은 초기 크리스찬들이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2) 타래머리(Poeth)

타래머리란 관자놀이 머리를 특별히 기른 것인데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구렛나룻을 밟지 말라”(레위기 19:27)고 한 성서에 근원을 두어 유대인들만이 관자놀이 머리를 길렀는데(사진 10) 리비아(Libyans), 시리아(Syriens), 크레타(Cretans)인들도 길렀다.

그러나 앗씨리아 浮彫들에서의 히브리인들은 tsitsith도 poeth도 없는데 이것은 후에 부과된 의무이거나, 조각가가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을 모델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poeth는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표시가 되었다. 현재도 몇몇 특정 지역(Jerusalem)에서의 정통 유대인들(orthodox Jews)은 머리와 수염 그리고 술장식된 수건을 쓰거나 두르고 있다.

3) 混織의 금지(Shaatneg)

“…네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종류가 다른 실을 섞어 짠 옷을 네 몸에 걸치지도 말

라”(레위기 19:19), “털실과 모사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신명 22:11).

성서에 이 관습에 따라 색칠이 다른 것과 섞이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대제사관의 하리띠와 tsitisth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¹⁸⁾ 현재까지도 정통 유대인(orthodox Jews)들은 이 법을 지키고 있다.

4) 탈무드 구절을 써 넣은 상자(Tefillin)

두개의 작은 가죽상자를 가죽끈에 매단것으로, 하나는 앞이마에 묶고, 다른 하나는 왼팔에 묶는다. 초기에는 각 상자에 모세 5경 중에서 4구절을 적은 종이를 접어 넣은 것이다.

탈무드시대의 학자들은 랍비(rabbi)의 가르침대로 하루종일 그것을 묶고 있었다고 한다.<그림 3>



<그림 3> 술장식된 모포와 Tefillin, A.D.1725.

그것은 출애굽 13장 9절, 16절과 신명기 6장 8절, 11장 18절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원래는 히브리인들이 이 문장을 이마와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겼는데, 문장은 지중해 연안의 다른 민족들도 무척처럼 표시했었다고 한다.¹⁹⁾ 아직까지도 정통유대인들은 아침 기도문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통 유대인들은 이 관습을

유대인 개혁 때 기부했다.

5) 결혼한 여자는 머리를 가린다.

히브리인들의 관습에는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 머리를 가려야 하는 관습이 있다.

성서적 관원은 민수기 5장 18절에 누며 유대인들은 미쉬나(Mischna)²⁰⁾에서 법으로 제정했다. 탈무드시기에는 결혼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밖에 나오면 불경진하게 생각하고, 일할 때라도 머리를 가려야 한다. 머리를 가리지 않은 여인은 처녀로 간주한다.

유대인들의 실행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성바오로가 코린트인들에게 쓴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기도를 하거나 하느님 말씀을 받아서 찬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머리 속 자기 남편을 유퇴하게 하는 것이다. 머리를 빙것이나 다름 없다…….”(I-코린트 11:4-7)

3. 구약성서에 나타난 大司祭의 服飾

히브리 대사제의 복식은 유물이나 그림을 찾아보기 어렵고, 성서 출애굽 28장에서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영광스럽고도 아름답게 지어라…… 그들을 시켜 지을 옷은 가슴받이, 예봇, 도포, 자수속옷, 사보, 제복띠 등이다…… 금실과 자주빛 텔실과 붉은빛 텔실과 진홍빛 텔실과 고운 보석실로 짠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출애 28:2~5) 그 외에도 출애굽 29장 1~35절, 레위기 16장, 예제키엘 44장 17~20절, 집회서 45장 7~13절에서 사제복이 서술되나, 조형적인 형태보다 의미에 더 치중해서 서술되었다. 또한 각 성서가 다른 연대이므로 각각 다른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한 것으로 본다. 특히 B.C. 2세기 경 쓰여진 집회서에서는 다른 성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금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앗씨리아의 하스모니아(Hasmonean) 왕 때 대사제는 왕과 좋은 관계로써 최상의 대접과 최상의 사제복을 입게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카베오 상권 10장 20절에서 조나단 마카베오(Jonathan Maccabaeus)가 B.C. 152년 정에 대사제 장이 되었고, 왕으로부터 친구의

18) Alfred Rubens : 1973, p.8.

19) Alfred Rubens : 1973, p.8.

20) 2세기말 팔레스타나에서 한 잔된 유대인 법령집이다.

상호와 사색옷과 금관을 받았다. 조셉스(Josephus)는 성전이 바뀌되기 직전에 대부분의 祭事禮式을 복기한 차이가 때문에 그의 설명과 數值에 따르면 대영 바울판에 있는 浮彫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앗씨리아왕 아슈르-바니-팔(Ashur-Bani Pal, B.C. 668~624)의 것과 아주 비슷하다.〈사진 11〉〈사진 12〉(사진 13)



〈사진 11〉 앗씨리아왕 Ashur-bani-pal, B.C.650, British Museum.



〈사진 12〉 대사재관, B.C.650, British Museum.



〈사진 13〉 B.C.500~A.D.70년경의 대사재관의 모습을 성서 설명대로 다시그림. Barbara Phillipson의 그림.

1) 잠방이(Ezor, 출애 28:42)

아주 얇은 아마로 짜진 것으로 허리 아래에서 줍게 내려와 허벅지에서 끝난다. Pagne²¹⁾라고도 하고, 성서에서는 잠방이로 번역되었다.

2) 내리다지(Kethoneth, 출애 28:39)

Tunique이라고도 하며, 몸에 꼭 맞고 주름이 없으며 꼭 맞는 긴 소매와 발목까지 오는 것으로 제복 밑에 입는다. 아주 고운 아마 이종직으로 되었고, 목에 트임이 있다. 어깨에서 앞뒤를 끈으로 매고 있다.

3) 띠(sash, 출애 28:39)

Kethoneth 위에 띠는 띠로 넓이는 8cm정도이며 짙은 흥색, 자색, 청색으로 짰고, 꽃무늬가 있으며, 날실은 곱고 순수한 아마로 짰다. 가슴위로 두 번 감아 돌려서 앞가슴의 가운데 와서 맨다. 그 끝이 발목까지 내려오게 늘어뜨리면 아주 아름답다. 사제가 그의 의무를 수행할 때는 띠의 끝이 사제의 원쪽 어깨에 걸치므로 움직일 때도 거추장스럽지 않다.〈사진 14〉

4) 에봇(Ephod, 출애 28:8)

길이가 55cm 정도로 금자수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21) A.D. 70년경에 유대인 사제가족의 일원으로 역사가이다.

22) 오춘자 : 성서를 배경으로 한 Hebrew 복장의 상징적이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78, p.13.



〈사진 14〉 대사재관의 복식종류, B.C.500-A.D.70, ① me'il
② ephod ③ ephod관, ④ pectoral, ⑤ linen관,
⑥ linen관 덮개, ⑦ 자수원 관, ⑧ 금관, ⑨ 하
느님 이름을 새긴 금관.

색으로 짜졌고, 짧은 소매의 Kethoneth처럼 보인다. 각 어깨는 흥옥수로 만든 브로치로 고정시키고, 그 두 흥옥수에 히브리어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대로 오른쪽 어깨부터 여섯명씩 새긴다. 이 두 개의 흥옥수를 예봇의 양 멜빵에 단다.〈사진 14〉

5) 가슴받이(Pectoral, 출애 28:15)²³⁾

Ephod와 같은 색이나 금이 섞여 있다. 12개의 아름다운 보석을 박아 넣었는데, 각보석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순으로 새겨 넣었으며, 12지파를 상징한다. 가장 오래된 뜻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한 urim과 tummim²⁴⁾이 들어 있는 주머니 같은 것이다(판관기 18:14~20).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가끔 우상처럼 집안 성소에 놓아두기도 하였다(I 사무엘 21:10). 이와 같이 도구로 쓰게 된 것은 고대 셈족들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이것이 변화하여 후에 Pectoral이 되었다.〈사진 15〉

6) 가슴받이를 위한 도포(me'il, 출애 28:31)

청색이나 보라색의 재료로 짜서 만든 것이다. 발목까지 오고 한 장으로 된 내리다시로, 팔이 나오도록 터놓고, 목트임을 앞뒤에서 세로로 틀 것이



〈사진 15〉 성서의 설명대로 Aaron의 Pectoral을 현대자료로 만듬, Vie et Coutumes에서.

특징이다. 아래단은 금으로 된 종모양과 색있는 석류모양의 술장식을 번갈아 매달았고 띠도 금을 섞어 썼다.〈사진 14〉

7) 머리장식(출애 28:36~39)

아마(linen)로 된 小冠을 머슬린으로 만든 터번으로 덮고, 그 위에 청색으로 자수된 것을 써운다. 다음 금 꽃봉우리를 정교하게 만들어 금관 주위에 삼단으로 둘렀다. 금관은 관자놀이에서 목덜미까지 내려오고, 관앞의 판에 하느님의 이름을 새겼다.〈사진 14〉

4. 舊約聖書에 나타나는 服飾의 象徵

1) 의복은 세상의 질서를 상징한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전의 세상은 질서 없는 혼돈의 상태에서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의해 세상은 정연하게 각기 재자리에 있다(창세 1:1~25).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시 질서를 깨뜨리고 혼돈 상태가 된 것을 하느님이 죄의 결과를 고쳐주고 짐승 가죽으로 입혀줌으로써 다시 인간은 질서 안에 들어 오게 한다(창세 3:21). 가죽옷을

23) 이 가슴받이는 주머니 형태로 되어있고 그곳에 urim과 tummim을 끼워 넣는다.

24) 대사제가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로서 일종의 주사위라 할 수 있다. Pectoral안에 넣어 둔다.

T.O.B. Ancien Testament, Cerf, 1977, p.180.

- Botte Luce : Encyclopedie de la BIBLE, Sequia, 1961, p.246.

- E. Royston Pike : Dictionnaire des religion, P.U.F., 1954.

입혀 준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위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고대 히브리 민족들은 의복을 입는 것은 하느님의 질서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벗은 상태는 혼돈, 부자유, 인간성 상실을 의미한다.

포로가 되면 옷소매와 아랫부분을 짧아서 주인이 보관함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이사 20:4) (야고보 2:16). 또한 의복을 입힘으로써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영광에 참여시킨다. 목자와 같이 막막한 황야에서 업동이를 감싸주시며(신명 32:10), 왕과같이 자기 걸옷자락으로 백성들위에 편치시고(예레 16:8~10), 사제를 만들기 위해 좋은 아마포와 비단으로 그들을 입히신다(출애 28:5, 30장, 40장).

그러나 하느님의 이같은 사랑에 인간은 항상 충실하지 못하여 예언자들은 옷을 벗고, 낡고, 찢어 짐으로써 비유한다. 예제기엘은 불충실한 신부가 알몸을 밟긴다고 하고(예제 16:15~17, 호세 2:9~11), 이사야는 옷이 낡고 찢어졌으며(이사 5:9), 좀에 벽혀 삭아있었다(이사 51:8).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을 죄에만 남겨 놓지 않고 구원방법을 실현한다. 정의를 갑옷으로, 복수를 의복으로, 그리고 질투를 걸치시고(이사 59:17), 신부에게 정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리라(이사 6:1:16). 신약성서에서 하느님은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함으로써 구약성서를 완성시킨다.

2) 의복을 찢음은 회개, 슬픔, 죽음을 상징한다.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면지를 쓴채 저물때까지 야훼의 케앞에 엎드려….”(여호 7:6)

“입다는 약속대로 죽어야 하는 딸을 보자 옷을 찢으며 외쳤다”(판관 11:35).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왕은 회개하여 자기옷을 찢었다”(2열왕 22:8~11)

“속죄의 표시로 옷을 찢는다”(2열왕 6:30) (욥 2:13) (욥 1:20).

“옷을 찢고 낡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아브넬의 상여를 앞서 가며 꼭하라”(2사부 3:31)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날이가도 달이가도 옷기만 했다”(창세 37:34).

3) 흰옷은 하느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하느님이 악에 대한 승리를 속죄를 통하여 베옷을 바꾸어 영광의 옷으로 바꾸신다.

“당신은 나의 통곡의 슬픔을 춤으로, 베옷을 산자옷으로 갈아 입하시다”(시편 30:11).

“그들이 무덤안에 웬 짚은이가 흰옷을 입고…”(마르 16:5).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동안… 그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사도 1:10)

“옥좌 둘레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물네명이 앉아 있었다”(눅시 4:4).

하느님은 이렇게 구약성서에서 예언한 대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구원을 완성시키면서, 하느님의 영광의 상징인 흰옷으로 입혀 승화시킨다.

IV. 베두인(Bedouin)族의 服飾

1. 베두인 族의 생활형태

베두인 족은 팔레스티나(현 이스라엘) 지역과 시리아, 이락, 아라비아 사막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다.

베두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아라비아로부터 오기 시작하였으며, 아랍어로 badu라 하는데 이 말은 ‘사막의 거주자’란 뜻이다.

아라비아 반도는 남쪽의 예멘(Yemens), 오만(Oman)과 북쪽의 유프라테스강(Euphrates) 유역과 서쪽의 지중해 연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범위한 사막이다. 베두인들은 사막에서도 물의 근원인 오아시스를 찾아 널리 퍼져 살고 있다.

팔레스티나 지역의 베두인들은 남부 Negev와 Sinai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가축을 기르며 생활하고 있다. <사진 16>

이들의 생활은 성서의 모세(Moses)와 그의 부족들의 이야기와 관계를 지어볼 때 그 당시의 생활을 잘 증거 해주고 있다. 베두인들의 삶을 다스리는 법이 모세의 법(출 21, 23)과 거의 같다. 그들이 입고 있는 복식도 성서의 조상들이 입었던 것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누룩없는 빵(Matza)을 먹었는데(출 12:27) 그들이 매일 먹는 빵도 이와 같은 종류다.

베두인들이 여름과 가을에는 수카(saukka)에서



〈사진 16〉 팔레스티나 남부에 있는 베두인의 텐트, 현지에서.

네위를 피해 사는 것이 있는데, 성서에서 유대인들이 이 매년 가을에 1주일 동안 수카에서 살도록 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두인들의 생활이 하브리 민족의 조상들의 생활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생활 관습과 복식도 많은 관련이 있으리라 본다.

현재 베두인들은 대부분이 이슬람교 신앙을 갖고 있으나, 도시에서와 같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독립된 아랍(Arabic)語와 협통을 가진 것을 자랑으로 알고, 정착한 서민들이나 도시에 안주하는 자들을 나약한 자들이라 경멸하기도 한다. 베두인들은 낙타, 양, 염소의 무리를 데리고 텐트를 치고 살며, 계절이 바뀔 때와 목축이 가능할 때 옮겨간다.

그들의富의 척도를 가축의 수와 텐트의 크기로 측정하는데, 부자는 부인의 숫자대로 텐트를 차기도 한다. 대부분은 하나의 텐트 위에 칸바이를 차고 생활한다. 바로 이 텐트의 크기와 깊이는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실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가족단위로 텐트를 치는데, 한 가족으로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들 3대가 같은 텐트에 살고, 대개 친척이나 혈연관계자들이 부리를 지어 같이 모여 산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 한 지도자 아래서 같이 싸우기 위해서다.

그들은 빨리 달리는 암말과 좋은 총과 칼을 갖는 것을 그의 명성과 비례하는 것으로 여긴다.

남자는 가장으로서 가축을 사고 파는 결정을

하고, 새로운 목축지를 찾아야 하고, 언제 가족이 옮기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며, 추장과 이웃, 상인들을 만나고 교역하는 역할도 한다.

여자는 물긷기, 가축의 부리를 아끌고 먹이기, 뱀감얼기, 아이 키우기, 낙타와 양털로 실 만들기, 직물 짜기, 자수, 텐트 수리 등 잡다한 많은 일을 한다.

베두인들은 부인을 사야 하는데, 값은 낙타로 치루며 사촌과 결혼하는 것을 가문의 혈족을 더욱 탄탄히 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이슬람교법에 따라 네 사람의 부인을 가질 수 있으나,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수의 남자 만이 네 부인을 데리고 있다. 그들은 원하면, 혹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을 쉽게 당하고, 위자료는 없다.

많은 베두인들은 두 부인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또 한 사람은 젊은 부인으로 집안일을 둘러 위해서이다.

베두인 복식의 특성은 사막에서 심한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하므로 짙은 색의 여유있는 옷을 여러겹 입는다.

2. 남자 복식

1) 외투(abayeh, jibbeh)

베두인 남자들은 유목생활에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 여러 날을 밖에서 보내야하고, 또 사막의 심한 기후차이 때문에 외투는 아주 중요하다.



〈사진 17〉 abayeh를 입은 베두인,(1925-1931),
Portrait of a Palestinian Village에서.

외투에는 주로 abayeh와 jibbeh가 있다.
abayeh는 낙타나 양털실로 짜서 내리다지처럼
어깨가 있고 앞은 넓게 텁으며 소매쪽은 팔이 나오
도록 터 놓은 것이다. cape처럼 어깨를 둘러싸고,
자연적인 밤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있고, 때로는
인디고 청색에 흰줄무늬가 있는것도 있다.〈사진
17〉

이 abayeh는 여러가지로 이용이 되는데, 비가
올 때와 추울 때 보호해주고, 밤에는 담요역할, 시장
에서 물건을 넣어오는 자루 역할, 기도할 때 까는
깔개(rug), 동물의 먹이를 넣어 먹이는 자루, 들에
서 일할 때는 적은 텐트의 역할을 하는 아주 유용한
옷이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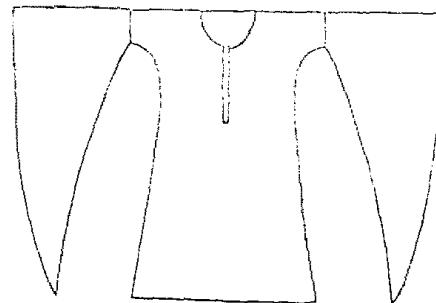
jibbeh는 추운겨울에 입는 것으로 양털외투로
털이 한쪽으로 가게 만들었고, 때로는 소매를 길게
하여 어깨에 걸쳐 입는데 그것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다.〈사진 18〉

2) 내리다지(thob)

thob는 베두인이나 정착지역 사람들의 기본 복식
으로 古代의 ketonette 혹은 tunique과 같은 것으로
흰색면이나 인디고 청색면으로 되었고 아주 고운



〈사진 18〉 Jibbeh의 긴소매 외투,(1917-1948),
Palestinian costume에서.



〈그림 4〉 베두인 남자의 긴소매 thob.

모로 만들기도 한다. 청색과 흰색의 줄무늬로 된
것도 있다. 길이는 대개 발목까지 오지만 무릎까지
오는 것도 있다.

칼라가 없이 목둘레에 맞게 재단되었고 부분
앞트임이 되었다. 소매부리를 넓게 한 것도 있는데
일할때는 소매를 뒤 어깨에 매기도 한다.〈그림 4〉

이 넓은 삼각형 모양의 소매는 특별히 제작되므
로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일할때 움직이는데 편하
기 위해 작은 주머니가 달린 가죽띠를 맨다. 띠를
매지 않으면 길이가 바닥까지 오는 아주 여유있는
thob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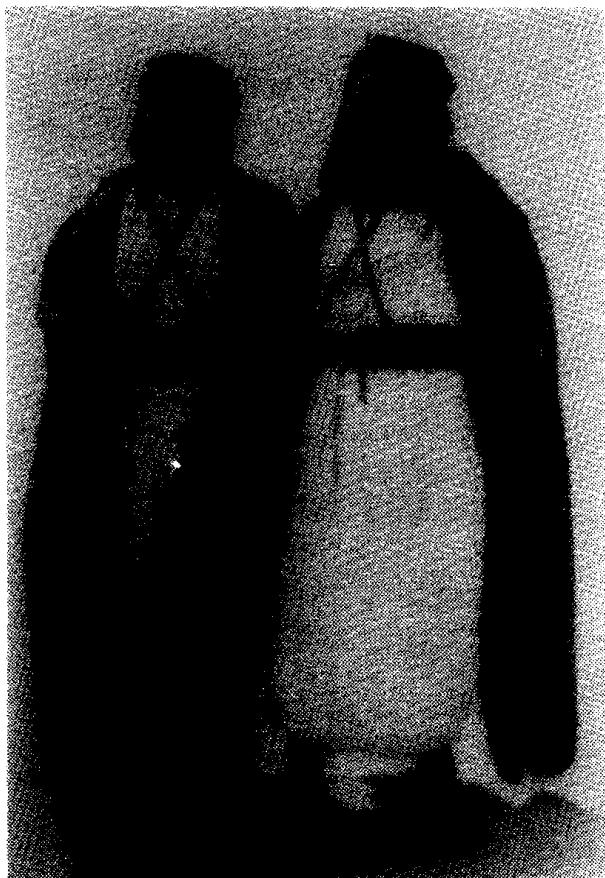
3) 띠(sherihah 혹은 kshat)

베두인과 정착지역 사람들은 모두 thob에 띠를
띈다. 베두인들은 주로 가죽띠로 띠는데 이 띠에는
여러가지 도구와 물건들을 매단다. 즉, 철고리를

25) Shelagh Weir : 1989, p.139.

몇 개 달아놓고 그곳에 뿔로 만든 화약통과 끝에
길이 달린 사슬, 총에 쓸 탄약주머니, 담배대와 담배
주머니, 그 외 필요한 것들을 달고 있다.

때로는 가슴에서 엉갈리는 가죽띠에 탄알이 든
탄띠와 탄약통을 끼우기 위해 구멍을 낸 띠를 두르
기도 하고, <사진 19> 좁고 꼭선으로 굽은 단도를
허리춤에 끼기도 한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지역주
민들의 영향을 받아 넓게 직조한 띠(kamr)를 매기
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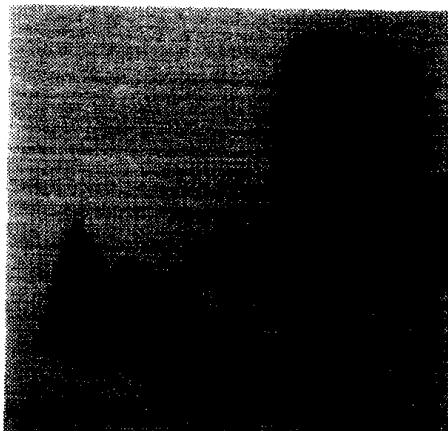
<사진 19> jibbeh와 검은 keffiyeh와 agal, 가죽띠,
wata를 신었다.(1917-1948),
Palestinian costume에서.

4) 신발

베두인들은 주로 맨발로 다니거나, 끈을 달아
첫째와 둘째 발가락 사이에 끼어 신는 샌달을 신었
다. 그러나 말을 타는 사람들은 붉은색이나 노란색
의 부츠(yezmeh)나 목이 없는 가죽신(wata)의
바닥에는 튼튼하게 철로 징을 박아 신었다. <사진
20>

5) 머리수건(Hattah 혹은 keffiyeh)

팔레스티나 사회에서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사진 20> 베두인들의 겨울신발 wata와 yezmeh,
Museum of Menkind.

썼느냐에 따라 도시인인지 시골사람인지 베두인인
지 구별 할 수 있으며, 어느 종교에 속해 있는지,
정치적 위치, 부의 정도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사각의 머리수건(keffiyeh)을 대각선으로 접어
머리에 쓰고 그 위에 머리띠(agal)를 두른다. <사진
21> 머리띠는 검은 염소털이나 밤색의 낙타 털실로
감은 것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중간 중간 간격을
두고 금사로 감아서 사용한다. 머리수건은 면, 고윤
모, 실크로 만들고, 흰색, 검은색 혹은 다양한 색과
무늬로 되어있다.

이 수건은 기후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더위와 추위를 막고, 먼지나 모래를 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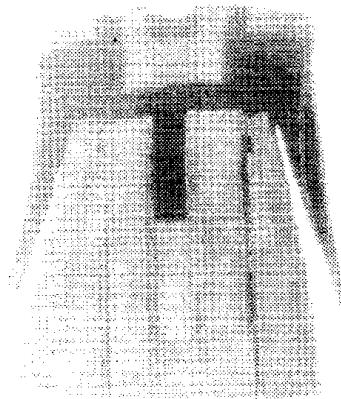
<사진 21> 젊은 베두인남자가 keffiyeh를 쓰고 그 위에
금사와 색사로 감아 신분을 나타내는 agal을
쓰고, 단도를 차고 있다. THE BEDOUIN에서.

위해 눈, 코를 가리고 복 뒤로 허리 쓰는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3. 여자 복식

1) 내리다지(thob)

매두인 여人们的 기본복은 남자의 thob와 같은 형태이나 여人们的 thob에는 자수를 놓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22>



<사진 22> 소매부리가 긴 베두인 여자의 thob으로 소매가 뾰족하다고 해서 abu erban라고 단에는 사텐 스티치로 처리하는데 그것을 베두인 스티치라고도 한다, (1917-1984) Jehan R. : Palestinian Costume에서.

thob의 재료는 검은색 면이나 고운 사텐, 모로 되었고, 자수로 천을 다메운 것도 있는데 특별히 옷의 뒷면을 다 메운다. <사진 23>

자수는 앞판과 뒤판에 가득 놓이고 앞가슴 부분과 어깨, 소매부리에도 수를 놓았다. 자수의 무늬는 야자수, 시프러스(cypress), 봄에 사막에서 피는 작은 꽃(nafnaf)들과 기하학 무늬, 삼각형, 별, 달, 마름모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오래된 thob일수록 기하학 무늬가 많이 보인다.

자수의 주조를 이루는 색은 붉은 색인데, Tayaha 부족에서는 자수의 색으로 여人们的 상태를 나타낸다. 붉은색으로 수놓은 옷을 입으면 결혼한 여자이고, 청색수는 미혼 표시인데 결혼한 후나 첫아기 임신 후에야 붉은색 자수옷을 입게 하기도 한다. 이혼한 여자나 과부도 청색 자수옷을 입고 재혼한 여자는 붉은색은 윗부분, 청색은 치마부분에 자수된 옷을 입는다.²⁶⁾ 일할 때는 수놓지 않은 검은면이



<사진 23> 소매가 짧은 베두인 여자의 thob, 주로 붉은 실크사로 자수되고 약간의 청색과 녹색, 노란색이 있다.
특히 노란색은 악의 눈을 막기위해 사용된다.
(1917-1948) Jehan R. : Palestinian costume에서.

나 사텐에 치마 단에 약간의 자수와 띠를 맨다.
<사진 24> 긴소매는 어깨 뒤로 매고 일을 한다.

2) 띠(shwahiyeh, hiz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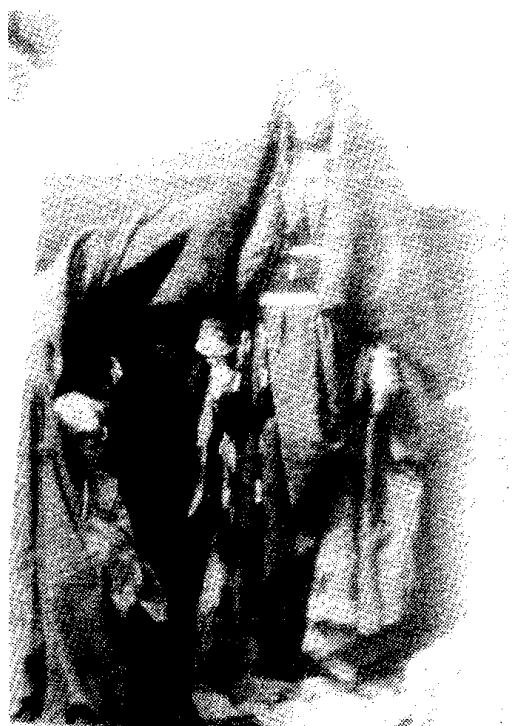
띠는 베두인 여人们的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손으로 짠 좁은 띠로 허리에 두번 돌려 매고 끝에는 술을 달아 늘어뜨린다. Negev사막 베두인 여人们的 넓게 짠 띠(hizam)를 매고 그 위에 좁은 띠(shwahiyeh)를 다시 매는데 넓은 띠는 장식없이 검은색과 흰색 줄을 넣어 썼고 좁은띠에는 술, 구슬, 조개, 단추, 동전 등으로 장식 한다.

축제 때는 여러가지 색으로 직조하고, 술과 여러 가지로 장식된 넓은 띠를 앞과 뒤에 띠를 매달아 늘어뜨린다. <사진 24>

3) 머리수건과 얼굴수건(asbeh, qun'ah)

베두인 여人们的 항상 머리를 가리는데, 일할 때는 사각의 수건을 대각선으로 접고 그것을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접어 앞이마에 대고 뒤에서 묶는

26) Shelagh Weir : THE BEDOUIN, 1990, p.71.



〈사진 24〉 네게브사막의 베두인 여자복,
(1926-1935) The BEDOUIN에서.

나(asbeh) 그 위에 큰 수건(qun'ah)을 쓴다. 이 큰수건은 몸전체를 감쌀 수 있는 크기고, 거의 전면에 자수로 장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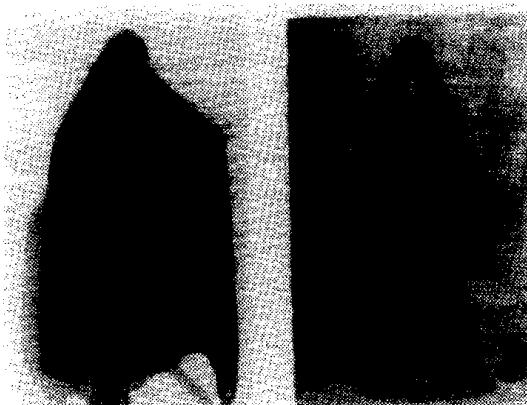
asbeh에는 면이나 모, 실크로 여러가지 색을 사용하지만, qun'ah는 thob와 같은 재료와 색으로 한다.

베두인 여자들은 항상 텐트 생활을 하므로 외투가 필요없고, 외출할 때나 외부손님을 맞을 때, 가축을 물고 먹이를 먹일 때 외투 대신 이 qun'ah를 사용한다.〈사진 25〉

4) 장신구

베두인 여자들은 장신구를 좋아한다. 장신구는 상식적인 면 뿐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자가 결혼할 때 장신구로 장식하는데 이것들은 결혼한 상태를 외부에 알리는 표시고, 또한 결혼계약으로 자기재산으로의 표시도 된다. 신랑이 신부아버지에게 지불한 신부의 값의 일부이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신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도 있다. 만일 돈이 필요하면 일부를 팔기도 하고 돈이 생기면 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재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되므로 부의 척도가 된다.

베두인들이 텐트를 치면 그 가까이 있는 마을이



〈사진 25〉 큰 직사각형의 검은 색 gun'ah를 쓴 모습,
Folklore Museum of Amman Jordan.

나 도시에 있는 은세공 상점에서 장신구들을 산다. 그러므로 베두인들 사이에서도 장신구의 유행의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초기에는 은세공품이 값비싼 것이었으나 차츰 금세공품들이 유행하게 되어 지금은 젊은 베두인 여자들은 모두 금세공의 장신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부적(符籍 amulet)은 여러가지 보석, 구슬, 은으로 만들어졌고 형태와 색상은 여러가지인데 각각은 특별한 병을 막기 위해서 달고 다닌다. 예를 들면, 흑색병 모양은 출산후 산모의 병을 방지하고, 희고 부드러운 돌은 모유(母乳)를 보호하고, 청색의 구슬은 악의 눈을 방지하는 부적의 의미가 있다.

모양은 타원형, 직사각형의 상자, 원통형의 상자, 물고기 모양등이 있다.〈사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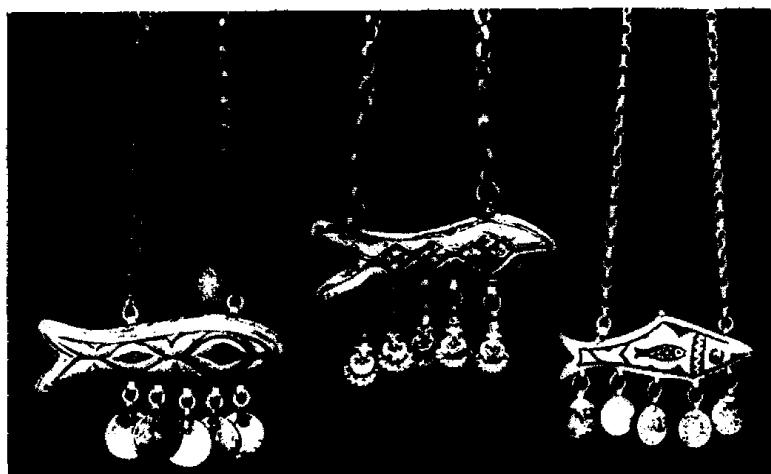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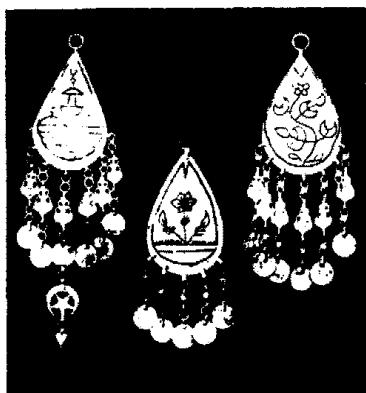
목걸이는 다양한 형태의 고리(chain) 목걸이가 있고, 넓은 폭면 위에 은제품 장식을 붙여 목에 건다. 어떤 것은 허리까지 내려 오는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산호, 호박이 주된 보석이며 목걸이는 부적처럼 목에 건다.

팔찌는 상감(象嵌)으로 장식된 넓고 좁은 팔찌가 있는데 항상 쌍으로 각 팔목에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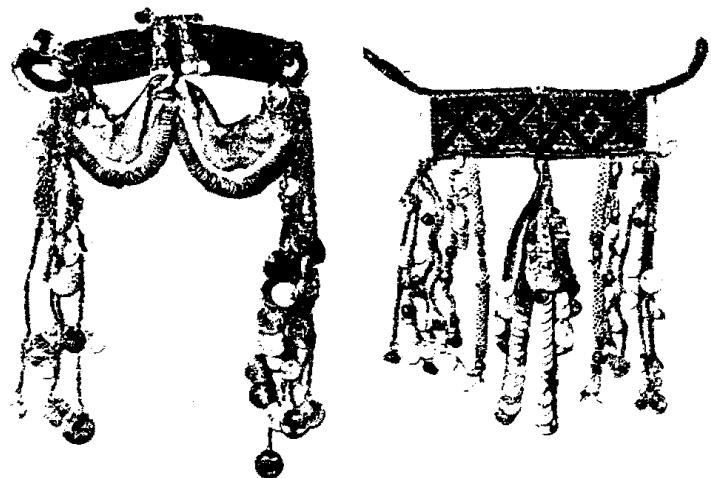
반지는 은으로 세공한 여러가지 은반지와 보석 반지가 있는데 네 손가락 모두 반지를 낀다.

그외 미리핀, 코걸이 장식이 있다. 특별히 네 게브와 시나이 사막 베두인 여자들은 많은 보석, 동전 등으로 얼굴 장식(burga')을 한다.〈사진 27〉 · 〈사진 28〉

이 burga'는 전통적인 장식품으로 이마에 손으로 짠 띠를 매고 이 띠의 네 끝에 끈을 달아서 뒷쪽에



〈사진 26〉 amulets, The BEDOUIN에서.



〈사진 27〉 burga로 얼굴을 장식한 베두인 여자와 여러가지 모양의 burga, Museum of Mankind.

서 묶고 고정시킨다. 띠 앞에는 얇은 베일(veil)을 달고 그 veil 위에 많은 보석이나 동전을 붙여 눈만 나오게 얼굴을 가리고, 양 옆쪽에 사슬장식, 구슬장식을 단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veil을 쓰고 결혼한 여자는 veil을 쓰지 않는다. 새로운 장식이 생기면 그 위에 더 첨가하기도 한다.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들 중 일부만 이러한 장식을 하고 젊은 사람들 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사진 28〉 burga장식과 자수된 gun'ah를 쓰고 있는 세 베두인 여자,
Traditional Palestinian embroidery and Jewelry에서.

V. 결 론

「*성서*」(聖書)은 그 자체로 고대 서민족 복식과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여 하였으나, *歴史的*로 살피면서 본 것과 같이 복잡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전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 민족의 복식은 성서를 관찰을 하여 고대 주변국가의 변화나 부조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고대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오랫동안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였다. 지금도 사막의 유목생활과 고대 히브리 민족의 유목생활과는 유사점이 많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전통을 지니고, 변화가 적었던 베두인 족의 복식을 고찰함으로써 히브리인들 즉, 팔레스티나 지역인들의 전통복식을 연상 할 수 있었다.

1) 고대 히브리인들의 기본복식 simlah가 변하여 베두인들의 외투 abajeh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외투의 용도가 고대나 지금이나 기후변화에서 몸을 보호하고, 밤에는 담요로, 물건을 넣는 자루의 역할과 기도할 때 깔수 있는 역할이 같기 때문이다.

2) tunique 형태인 kethoneth와 베두인의 thob 가 같은 것으로 본다. 그 모양과 용도가 거의 같기 때문이다. 지금도 균동지역 여러나라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형태의 tunique이 기본복이 되어 있다.

3) 여자들이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과 많은 장신구들로 장식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 민족이나 지금 베두인이 같음을 볼 수 있다.

본연구는 자료가 많지 않아 신빙성이 애매한 점도 많지만 균동지역의 복식연구의 시작으로 앞으로의 연구는 좀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한다.

균동지역 복식연구 Ⅱ에서는 팔레스티나 지역 사람들과 베두인들 사이의 영향과 복식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Resumè

Etude sur le vêtement dans le Proche-Orient.

Oh Chun-ja

Le Proche-Orient est le pays de la Bible, Le

peuple Hébreu ancien, appartenant à la race des Sémités sémi nomades, est venu avec Abraham, de Mésopotamie en Palestine, terre de Canaan.

Nous avons considéré les vêtements du peuple des anciens Hébreux en nous basant sur la Bible et en observant des peintures murales et des bas-reliefs des divers pays de l'ancienne époque. Pour comprendre l'évolution des vêtements des gens de la présente région palestinienne, nous avons étudié les vêtements traditionnels de la race bédouine qui mènent jusqu'à maintenant une vie nomade dans le désert, parce que nous n'avons pas pu connaître le processus d'évolution des vêtements après l'ancienne époque à la suite d'événements historiques compliqués.

En conclusion, nous pouvons nous résumer comme suit:

1) Nous pensons que la simlah, costume important du peuple hébreu ancien est devenu abajeh, manteau des Bédouins, puisque ces vêtements servent à protéger le corps lors des changements de temps, et la nuit on les utilise comme couverture et comme sac pour y mettre des objets, et comme tente lors du travail. En un mot, les fonctions de la Simlah et celles de l'abajeh sont les mêmes à l'époque ancienne et maintenant.

2) Nous pensons que la forme et l'utilisation de la Kethoneth ayant une forme de tunique et de la thob des Bédouins sont presque semblable. La kethoneth et la thob sont la tunique importante que portent jusqu'à maintenant tous les peuples du Proche-Orient.

3) Comme on le voit dans la Bible, les femmes du peuple hébreu et celles des Bédouins utilisent le voile pour couvrir la tête, et se servent d'accessoires pour décorer leur corps.

A l'avenir, les vêtements des Palestiniens, dans une recherche plus approfondie, feront l'objet de la 2ème partie de l'étude des costumes du Proche-Orient.

참 고 문 헌

- 1) 공동 번역, 「성서」 카톨릭용, 대한성서공회 발행, 1977.

- 2) 정양보, 이영환 : 이스라엘의 성지, 생활성서사, 1988.
- 3) 존 브라이트(김윤주 역) ; 이스라엘의 歷史, 上下, 문도출판사, 1978.
- 4) E. 까베냑(서인석 역) ; 성서의 역사적 배경, 성바오로출판, 1981.
- 5) G. 콜라트(허혁 역) ; 구약성서신학, 문도출판, 1976.
- 6) D. 클라인즈(성염 역) ; 성서지도, 성바오로출판사, 1989.
- 7) 오준자 ; 성서를 배경으로한 Hebreu북장의 상징적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78.
- 8) - Abed Al-Samih abu Omar ; Traditional Palestinian Embroidery and Jewelry, Al-Shark, 1987.
- 9) Alfred Rubens ; History of JEWISH CUSTUME, Peter Owen Limited, 1973.
- 10) A. Muller-Lancet et D. Champault ; La Vie juive au Maroc, Israel Museum, 1986.
- 11) - Botte Luce ; Encyclopedie de la BIBLE, Sequia, 1961.
- 12) Dr. Clinton Bailey ; The BEDOUIN, Palphot Ltd.
- 13) Edgar Hanlotte ; SYMBOLIQUE du VÊTEMENT, Aubier, 1963.
- 14) E. M. Laperrousaz ; ARCHEOLOGIE ART et HISTOIRE de la PALESTINE, Cerf, 1988.
- 15) Ester Jahasz ; Sephardi Jews in the Ottoman Empire, Israel Museum, 1990.
- 16) Etienne Charpentier ; Pour lire L'Ancien Testament, Cerf, 1980.
- 17) - E. Royston Pike ; Dictionnaire des Religion, P.U.F., 1954.
- 18) H. H. Rowley : ATLAS DE LA BIBLE, Centurion, 1969.
- 19) J. A. Thompson : VIE et COUTUMES, Inter Varsity, 1986.
- 20) Jean-Pierre Alen ; Le PROCHE-ORIENT Arabe, que sais-je?, 1982.
- 21) Karen Seger ; PORTRAIT of a PALESTINIAN VILLAGE, Third World Center, 1981.
- 22) Leiden, E. J. Brill ; Encyclopedie de l'Islam (Tome V), G.P. Maisonneuve et Larose S.A, 1986.
- 23) Leon-Dufour Xavier ; VOCABULAIRE DE THEOLOGIE BIBLIQUE, Cerf, 1970.
- 24) - S. Amiry and V. Tamari ; THE PALESTINIAN VILLAGE HOME, British Museum, 1989.
- 25) Shelagh Weis ; The BEDOUIN, British Museum, 1990.
- 26) Shelagh Weis ; PALESTINIAN COSTUME, British Museum, 1989.
- 27) - T. C. Mitchell ; BIBLE in the British Museum, British Museum, 1988.
- 28) T.O.B. Ancien Testament, Cerf, 1977.
- 29) - Widad K. Kawar ; MEMOIRE de SOIE, 1988.
- 30) Yedida, K. Stillman ; PALESTINIAN COSTUME and JEWELRY, Albuquerque, 1979
- 31) W. F. Albright ; THE ARCHEOLOGY of PALESTINE, Lebanon, 1977.
- 33) , "Le Monde de la BIBLE", Archologie et Histoire, 1990. Nov., Dec.
- 34) , "Le Monde de la BIBLE", 1987, 5, 6,7.